동신대에 '문화재 연구동' 수장고 등 갖춰 오늘 개관

동신대가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문화재 보존 연구와 유물·유적 전시를 위한 '문화재 연구동'(사진)을 19일 개관한다.

문화재 연구동은 지상 2층에 연면적 855㎡(259평) 규모이며, 전시실과 유물정리실, 실습실, 항온·항습기 등 전문 유물 보존 기기가 설치된 수장고, 비품실을 갖췄다.

또 야외 전시장에 나주 왕곡면에서 발굴된 선사시대 고인돌유적과 나주시 금천면에서 발굴된 삼국시대 토기가마유적이 설치돼 있다.

문화재 연구동 개관과 함께 동신대학교 문화재 조사단(단장 이정호)의 연구 및 실습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향후 문화재 발굴 조사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신대 문화재 조사단은 국내 최초로 옹관가마인 나주 오량동 가마유적(사적 456호), 나주 영동리 고분군, 해남 만의총 고분군, 나주 금성관(사적 제483호) 등의 유물·유적을 발굴해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한편 동신대 문화재 조사단은 문화재 연구동 개관을 기념해 19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옹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라는 주제로 옹관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호남 시조문학회 시서화전

31일까지 지하철 남광주역

호남시조문학회(회장 김옥중)의 '2009년 제4회 시서화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 지하철 남광주역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옥중씨의 '돌감나무' 등 회원들이 작품 30여 편을 출품했다. 시서화의 글씨는 서예가 김용석씨가 썼으며 그림은 화가 겸 조각가인 박윤숙씨가 맡았다.

한편, 호남시조문학회는 시조문학을 부흥시키고 우리 전통문화인 도자기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제1회 전국 인터넷·우편 시조 현상공모 분청사기 대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30일까지 원고를 접수하고 있다. 문의 062-266-800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선과 악 내면 파고든 두얼굴 연기 매력"

■ 24~25일 광주 공연 '지킬 앤 하이드' 주연 브래드 리틀 이메일 인터뷰

지난 2004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으로 한국 팬들을 사로잡았던 세계적인 뮤지컬 스타 브래드 리틀(45)이 광주를 방문한다.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공식 초청작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주역으로 광주를 찾는 그는 모든 배우들이 꿈꾸는 '오페라의 유령'의 주인공을 2천 200번이나 맡은 배우다. 파워풀한 가창력과 뛰어난 연기로 뮤지컬 팬을 사로 잡은 그의 공연을 보고 나면 팬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오는 24~25일 광주공연에 나서는 그와 이메일 인터뷰했다.

-'오페라의 유령' 때부터 당신을 아끼는 팬들이 많다. 한국 관객들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어디에 가서든 하는 이야기지만 이 세상에서 한국팬들보다 더 나은 팬들은 없다. 배경 지식과 열정, 그리고 매너있는 이들이 바로 한국팬들이다. 한국팬 분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계속 한국을 찾아오지도 않았을 거다. 그들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기쁘게 공연할 수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지킬 앤 하이드'의 매력은 무엇인가.

▲지킬박사는 이 세상의 악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에게 더 살기 좋은, 멋진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지만 나중에는 악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비록 지킬은 하이드라는 괴물을 만들어버렸지만, 그는 인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 그런 지킬의 노력과 깨달음까지의 과정이 매력이다.

"2200회 주연 맡은 오페라 유령 기록 '지킬'로 깰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남자 주인공이 작품 전체를 끌고 가는 작품인데 '원톱'으로 공연하는 게 힘들지는 않나. 컨디션 조절은 어떻게 하나.

▲이 역할은 실제로 1인2역이면서, 연기는 물론 음정 또한 전혀 다른 두 영역을 가진 2명을 연기해야 하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배역이다. 신체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마라톤을 뛰는 것과도 같다. 아마 세계 어디서도 이 배역을 이만큼 많이 하는 배우는 내가 처음일 거다. 일단 최대한 쉬도록 하고 목을 아끼는 거다. 공연이 있는 주말이 다가오면 될 수 있는 한 말을 하지 않는다. 의사소통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문자나 컴퓨터상의 채팅을 활용한다. 때로는 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때도 있다. 그리고 인삼차, 생강차를 많이 마신다.

-가장 좋아하는 곡과 부르기 힘든 곡은 어떤 건가.

▲맨 처음에 지킬이 자신의 실험안을 제시할 때 위원회를 설득하는 장면이 있다. 매번 다른 배우를 골라 리액션을 취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라 재미있고 매번 약간의 변화를 주며 노래하고 연기하는 부분이라 흥미롭다. 가장 어려운 곡은 하이드로 부르는 'Alive'다. 1막 전체를 지킬역의 테너로 계속 노래를 하다가 바리톤의 하이드 역으로 바뀌는 급전환이어서 힘들다.

-'This is the moment'는 너무 유명한 곡이라 부를 때 부담이 되지 않나. 또 주인공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confrontation'을 부르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This is the moment'는 지킬이 자신에게 실험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부르는 곡이기에 그 생각과 벅차오르는 느낌을 살려서 부르려고 노력한다. 그 때 지킬의 심정을 그대로 관객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confrontation'은 직접적으로 관객을 마주하며 두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지킬일 때에는 무대를 바라보고, 하이드는 실험실의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시작해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순발력있게 왔다갔다하며 보여준다.

-여주인공 루시와 엠마 등 이번에 꾸려진 팀들과의 호흡은 어떤지.

▲지역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 미국, 호주의 팀원들이 함께 일하는 것은 힘들다. 짧은 시간에 언어장벽을 넘어 우리가 이렇게 멋진 쇼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우리 팀원들 모두 열심히 일했고 팀으로써 훌륭히 잘해왔다. 루시의 벨린다와 엠마의 루시 두 사람 모두 멋진 배우들이며, 정말 즐겁게 같이 일하고 있다.

-팬텀역으로 2천 200회 출연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한국을 시작으로 세계 투어에 나서는데 '지킬 앤 하이드'로 이 기록을 깰 수 있을까.

▲팬텀역을 맡을 수 있어서 참 행운이었고 그렇게 많은 공연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렇듯 지킬과 하이드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않나.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 티켓 가격 12만원~6만원.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딤프' 성공에서 배워라

이달초 뉴욕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때아닌 한류열풍으로 뜨거웠다. 진원지는 뉴욕뮤지컬 페스티벌(NYMF)이었다. 한국 뮤지컬로는 처음으로 이 행사에 초청된 '마이 스케어리 걸'(My scary girl)이 뉴요커들과 평론가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것이다.

'마이 스케어리 걸'은 영화 '달콤, 살벌한 연인'이 원작으로, 소심하고 까칠한 영어강사 대우와 사랑스럽지만 비밀스런 여자 미나의 톡톡튀는 러브스토리다. 범상치 않은 캐릭터와 스피디한 장면전환, 그리고 절묘한 음악들이 어우러져 벽안의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난타' '점프' 등 넌버벌(non verbal) 공연이 브로드웨이를 '접수'한 적은 있지만 한국어로 진행된 뮤지컬은 '마이 스케어리 걸'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이 뮤지컬이 '메이드 인 대구'라는 사실이다. 서울의 내로라 하는 뮤지컬 컴퍼니도 해내지 못한 개가를 거둔 것이다.

'마이 스케어리 걸'은 지난해 열린 제2회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이하 딤프·DIMF)에서 창작지원 부문 1등을 차지한 작품이다. 전국에서 출품된 총 45개의 작품과 겨뤄 창작지원금 6천만원을 받았다. 제작비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뮤지컬과는 비교가 안되는 저예산이지만 높은 객석점유율을 기록했다.

'마이 스케어리 걸'의 성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역(逆)원정'공연에서도 구름관객을 동원하며 딤프의 존재를 전국에 알렸다.

'마이 스캐어리 걸'의 흥행으로 딤프는 불과 창설 3년만에 공연축제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꿈의 무대로 불리는 브로드웨이에 진출하게 된 것도 딤프에 참석한 NYMF 관계자의 눈에 들어서였다.

이처럼 딤프가 국내외에서 러브콜을 받게 된 데에는 창작뮤지컬 시상제와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기획한 딤프 집행위원회의 노하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딤프에 활력을 불어넣은 건 대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였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3주간 열린 딤프에는 7만3천여 명의 유료관객들이 다녀갔다.

특히 올해 딤프가 거둔 보이지 않은 수확 가운데 하나는 중앙정부의 관심이다.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창작뮤지컬 시상자로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전야제 등에 국·과장급 공무원들을 파견했다. 든든한 '아군'에 고무된 대구시는 내년 딤프예산을 10억원 늘어난 3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오는 20일 광주에서도 딤프와 비슷한 광주국제공연예술축제(20~31일)가 시작된다. 하지만 위상은 극과 극이다. 지난해 무대에 오른 16개의 공연에는 고작 8천여 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7만5천여 명의 관객이 관람한 딤프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문화도시를 자처하는 광주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공연예술제 조직위원회와 광주시는 딤프의 성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공연예술제를 문화중심도시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키우려면 말이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들의 관심이다. '마이 스캐어리 걸'을 브로드웨이로 이끈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구 시민들의 '내사랑 뮤지컬'이었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